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때문에...민주 ‘자중지란’?

문재인 차기 대선 재도전 본격 행보에

조경태 최고 “당은 안중에도 없다” 직격탄

김한길 대표 “對與 투쟁동력 떨어뜨린다” 불만

민주당이 문재인 의원의 행보를 놓고 내놓은 비판이 차기 대선 재도전 의사를 시사하고 본격 행보에 들어간 것을 두고 대표적 비노(비노무현) 인사인 조경태 최고위원이 2일 공개 비판을 가하자 문 의원 측에서 반격에 나선 것이다.

특히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에서도 “대여 투쟁동력을 떨어뜨린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전분열 양상으로 이어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차장. 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태에 대해 “참여정부의 불찰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얼토당토않은 국민 우롱”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차기 대선 행보에 대해서도 “사나 이답지 못하다”,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잣밭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당은 안중에도 없고 개인과 특정 정파의 이득을 위한 언행”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회견문 제목도 “문재인은 자숙하고 반성하고 책임져라”고 적

었다.

그는 또 “민주당을 이 꼴로 만든 사람들이 자기를 살 길만 찾는 형국이다. 한심하다”며 문 의원의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싸잡아 비난했다. 회견 후 기자들이 “문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여든 야든 강경파가 득세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합을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당에 무엇이 되든지 속고해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문 의원 등 친노가 전면적 재기 모색에 나선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4선의 추미애 의원에 의총 비공개

부분에서 문 의원을 향해 “여권의 대선불복 프레임에 대해 문 의원이 크게 털고 가는 게 좋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선 당시 문 의원의 상 황실장 출신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방대’에 출연, 문 의원의 차기 행보가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미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지났고 그간 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발언만 해왔다”며 “정국이 엄중하고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 대변인인 윤호중 의원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당을 다시 분열시키고 문 의원을 흠집 내려는 현 정권의 의도와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중북몰이 향후 선거때 계속될 것”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일 (여권의) 중북몰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선거 때 작동할 프레임”이라고 예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재미를 많이 본 셈인데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한민국 절반 정도가 중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라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결하게 하는 중오의 정치로

공존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문 의원은 “드러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면서 이 문제는 풀린다”면서 “오히려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대선)

불복, 불복, 불복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분들이 정말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에 대해 일종의 콤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이 자신에게 ‘자숙·반성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에 대해 책임지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몇몇 분들이 때때로 다른 얘기를 하지만 정말 소수다”라며 무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에 차기 대권도전 물으니 “지금 할 일 열심히 하는 중”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일 차기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 “지금 저는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한걸음 한걸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도봉운동원 시립장에 있는 발달장애인 취업 카페에서 일일 바리스타 체험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대선

에서 역할과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차기 대선에서 재도전을 시사한 것과는 달리 대담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또 문 의원이 신당 창

당을 공식화한 안 의원에 대해 “경쟁하지만 종래에는 같이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 생각은 그분께 여쭙보셔야죠”라고 답했다.

이어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기구인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좋은 시기에 발표하겠다”며 “내일(3일)

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에 외부인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화·수·목요일 중에 새정치추진위원회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우근민 제주지사·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고발

檢, ‘선거 거래’ 의혹 수사

제주지검이 2일 민주당 제주도당의 고발에 따라 ‘선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 시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이태일 검사)에 배당해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고발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와 소환조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에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한동주 전 시장을 불러

발언내용과 경위 등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주변 참석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고교 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우근민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내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라고 했다. 이러한 내면적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해 물의를 빚어 전격 지위해제됐다.

한편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월례 직원회의에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올해 최우수 국회의원에 주승용 선정

최우수 단체장엔 송광운·최영호·박병중

광주전남유권자연합

광주전남유권자연합은 올해 가장 우수한 의정 활동을 보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가장 면적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해 물의를 빚어 전격 지위해제됐다.

한편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월례 직원회의에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우수 광역의원으로는 박철홍(당 앞)·허강숙(순천)·송형근(고흥)·정정섭(구례) 전남도의회이 선정됐고, 최우수 기초의원에는 박춘수 광주 남구의원, 김유와 여수시의원, 마광민 광주 북구의원, 강원호 광주 남구의원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안도군의회를 지낸 김신 원도 선진수산 대표가 선정됐다.

이들 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3일 오후 6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권자 찾아가는 이동 법규안내센터’

광주 서구선관위, 이달말까지 운영...공직선거법 등 설명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대한 법규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찾아가는 이동 법규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 법규안내센터’는 이달 말까지 운영되며, 선거구민들의 행태가 잦은 광공서·터미널·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실시된다.

상담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며, 꼭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등을 선관위 직원들과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부터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동 법규안내센터’에서는 선거관련 상식이 기재된 톨렛을 이용한 퀴즈 이벤트를 참여와 선거기록사진 전시 관람, 공명선거 포토존 참여를 통한 공명 포토제니상에도 응모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급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지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희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1억9천만원 (급매)

비즈니스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옹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7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7개) ·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만실) ·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 각 필지별 상·하수도연결 연결공사 완료
-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신안지구 → 영광 →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어등산 골프장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워터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지 4,900㎡
건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저세한 문은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선도로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할용지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룸 14개를 ▶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 1층매매(17.5평) 3억5천
- 3층매매(85평) 3억2천
- 1층임대(18평) 보3천 월130만
-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